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Gosan Yun Seon-do Relic Museum

설계자 : 김상식(주.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유)유심종합건설 · 건축주 : 해남군청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은 해남윤씨종가에서 보관하고 있던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해남윤씨가와 관련된 인물의 위치 재조명 및 해남지역 시대부가에 대한 이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계획부지는 주산에 해당하는 덕음산과 안산인 버루봉을 잇는 상징축 위인 연동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연동마을은 역사성을 지니는 장소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말무덤, 연지 등 우리나라 농촌 전통마을의 구성요소가 마을의 경관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단순히 전시관 신축이 아니라 연동마을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설계를 진행하였다.

기존에 존재하는 '주산-녹우당-연지-송림-안산'의 기존축을 계획대지에 도입하여 '주산-계획대지-연지-송림-안산'의 건물 배치축을 설정하였다. 또한 계획대지 내에서도 전시관 건물의 위치를 남쪽으로 치우치도록 계획하여 연동마을의 주진입로 초입에 위치한 연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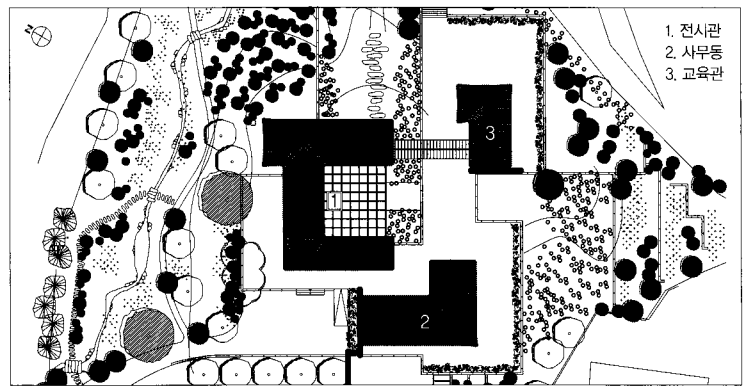
녹우당으로 향하는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였다. 진입마당-전시관-문학정원-앞뜰-녹우당의 시퀀스를 갖도록 각 동을 배치하였고, 후원을 계획함으로써 교육관(별서)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정원, 사무동과 서비스 동선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선을 계획하였다.

녹우당이 자리하고 있는 전통마을의 맥락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상층을 전통한옥으로 구성하여 지역적 맥락성 표현하고, 녹우당의 처마 및 지붕의 통풍구등 다양한 요소를 응용하였다. 또한 예학자의 삶과 문화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 구성마련을 위해 지하의 전시관과 지상의 전통한옥을 이어주는 매개공간으로서의 아트리움을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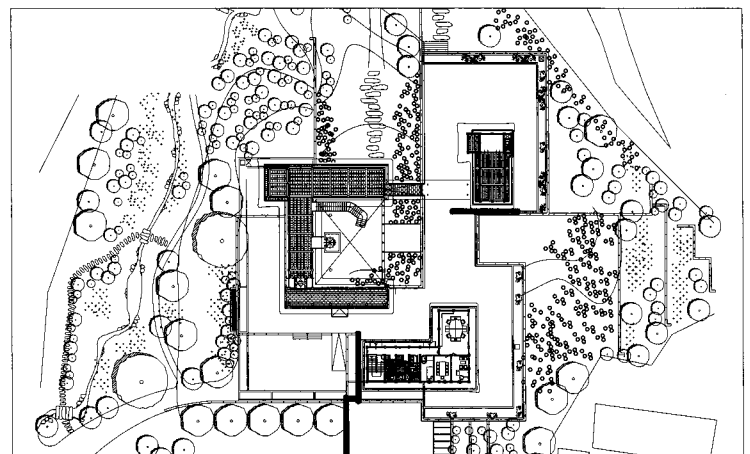
내부공간은 하나의 연속된 시퀀스 속에 존재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열림과 닫힘의 적절한 구성을 통해서 다양한 내부공간을 계획하였다. 지상에는 지하의 전시관으로 관람객을 이끌 수 있는 요소들을 배치함과 동시에 관람동선으로부터 벗어난 곳에 사무동을 두어 관리의



대지위치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102-1	연면적 1,830.68㎡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7.11%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용적률 3.98%
대지면적 ㎡	규모 지하 1층, 지상 1층
건축면적 611.89㎡	구조 전통한식목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배치도



1층 평면도



효율성을 높였다. 지하의 전시관은 지하라는 불리한 조건에 대해서 외부로 열린 공간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지상과 다름없는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러한 공간을 통해서 관람객은 전통마을의 흐름을 통해 정점의 녹우당으로 자연스럽게 향할 수 있다. 진입은 진입회랑을 거쳐서 진입홀로 들어서게 된다. 진입홀 한 쪽 벽면은 지하와 지상을 매개하는 아트리움 홀로 열림으로써 시선의 확장을 유도한다. 지상 1층의 별서 공간으로 계획된 교육관에서는 다도 등과 같은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전시관과 교육관은 회랑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홀 계단을 통해 아트리움으로 내려서면 외부로부터 연속된 자연을 느끼게 된다. 연결복도는 외부로 열린 공간으로써, 외부의 대숲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현재와 과거의 시점을 분리하는 전이공간으로 기능한다. ㉠

SK케미칼 연구소 SK Chemicals R&D Center

• 설계자 : 정영균(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에스케이건설(주) • 건축주 : 에스케이케미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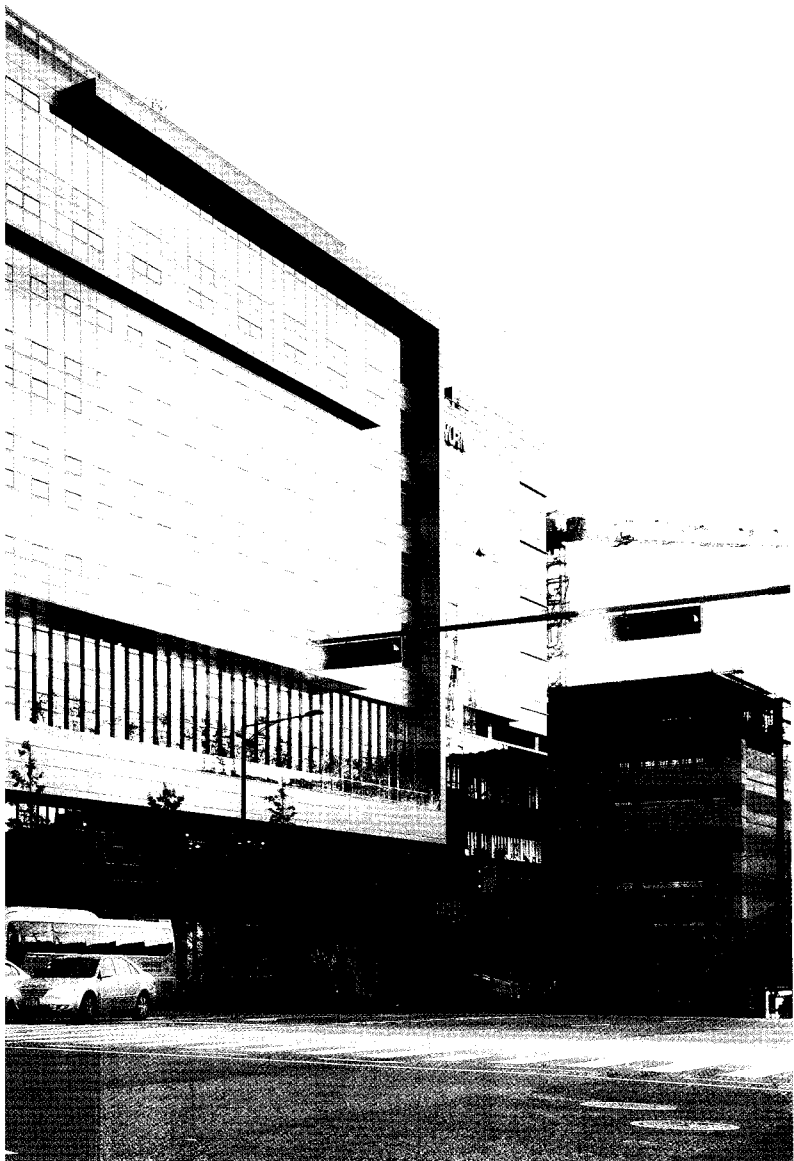
SK케미칼연구소는 경기도 성남시의 판교테크노밸리 내의 세계적인 수준의 최첨단 연구센터로 SK케미칼의 미래 친환경 추구의 표본으로 인간과 자연의 지속 가능한 공간 구현을 목표로 건설되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GBC)에서 제도 실시 이후 사상 최고 점수로 최우수등급을 획득했고, 현재 미국녹색건축위원회(USGBC) 주관 하에 친환경 건축물에 수여하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LEED)의 인증 과정에 있으며, 금년 7월 최고등급인 Platinum 등급을 취득할 예정이다.

디자인 발전과정에서 친환경 이미지 구현을 목표로 자연의 유입을 극대화 한 대공간 아트리움을 계획하고 마이크로 루버, BIPV, 옥상녹화, 우수 및 중수 활용 등 100여 가지 최첨단, 친환경, 에너지, IT기술 적용을 통해 약 40%의 종합적인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 적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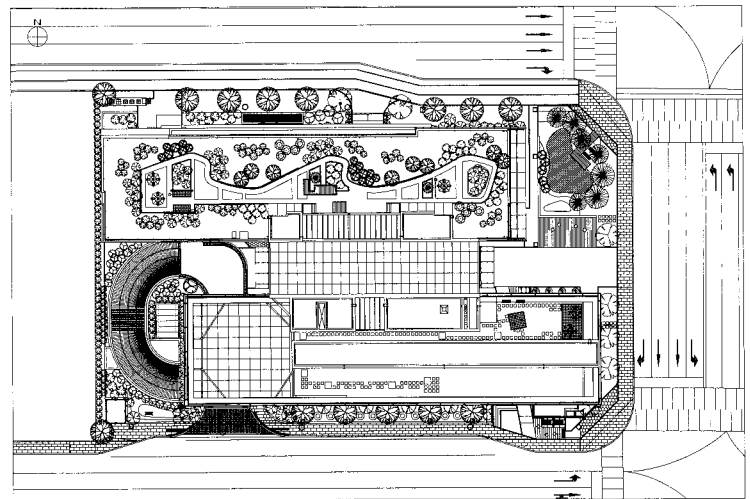
사람과 자연, 기업과 도시의 역어린 관계 속에 공존, 유희를 통해 조화로운 상징되는 공간인 SK케미칼연구소는 판교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친환경 건축물이 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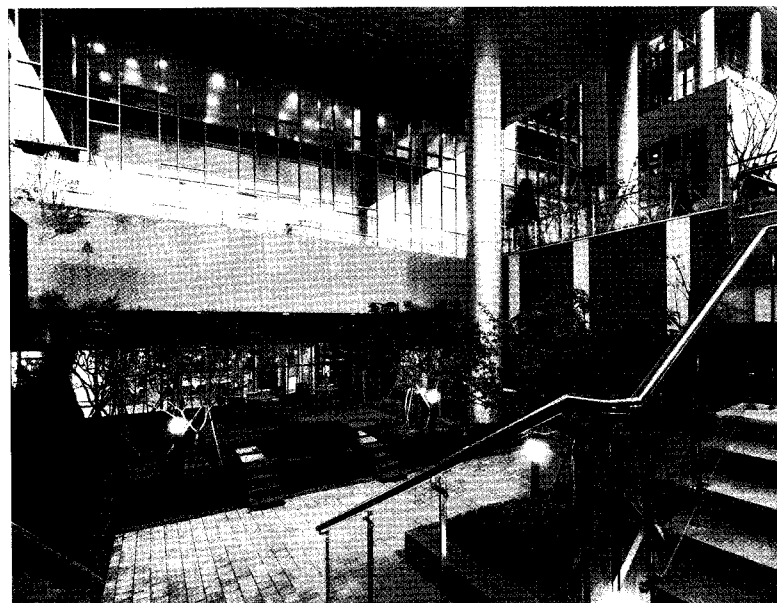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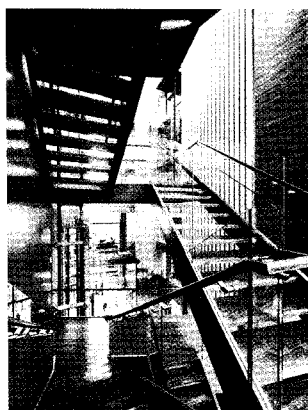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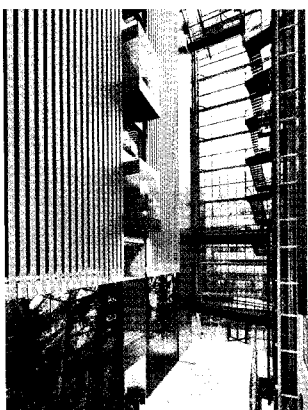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6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택지개발지구
 용도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대지면적 6,231.30㎡
 건축면적 3,734.83㎡

연면적 47,512.91㎡
 건폐율 59.94%
 용적률 404.18%
 규모 지하 5층, 지상 9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0 1 3 5 10m

배치도





성남 판교 산운마을 7단지 Pangyo Sanun Maeul 7-Danji

• 설계자 : 김희훈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 시공자 : 계룡건설산업(주) • 건축주 : 한옥로지주택공사

□ 2011 한옥건축문화대상 | 준공건축물부문 | 공동주거부문 _ 대상

판교신도시 끝자락 고요한 삼림 구릉지에 중대형 테라스 하우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욕구는 독립적인 단독주택 또는 전원주택으로의 조밀한 커뮤니티 또는 안정성이라는 개념의 아파트 단지 사이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부지는 성남 판교신도시 서쪽의 끝부분으로 택지가 숲과 잇달아 있다. 수도권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는 산지가 평지와 만나는 부분이다. 격자형 도시 그리드를 가진 신시가지의 택지 지역과 산지 사이에 위치한 경사진 기슭을 따라 새 개의 빌리지를 가진 206호 규모의 주택 단지를 조성하였다.

Symbiosis between the Nature and the Built _ 자연과 건축이 어울려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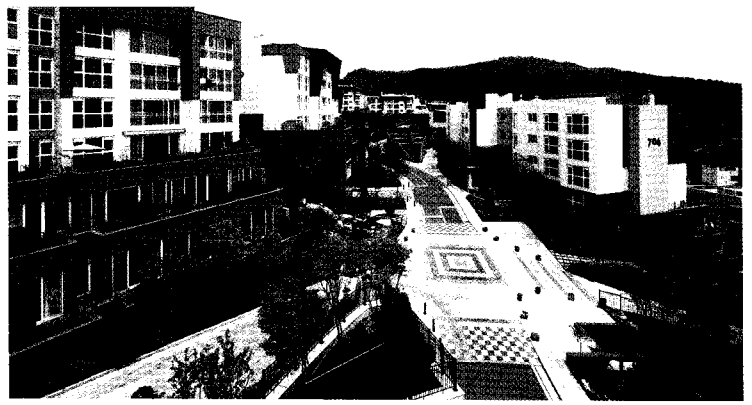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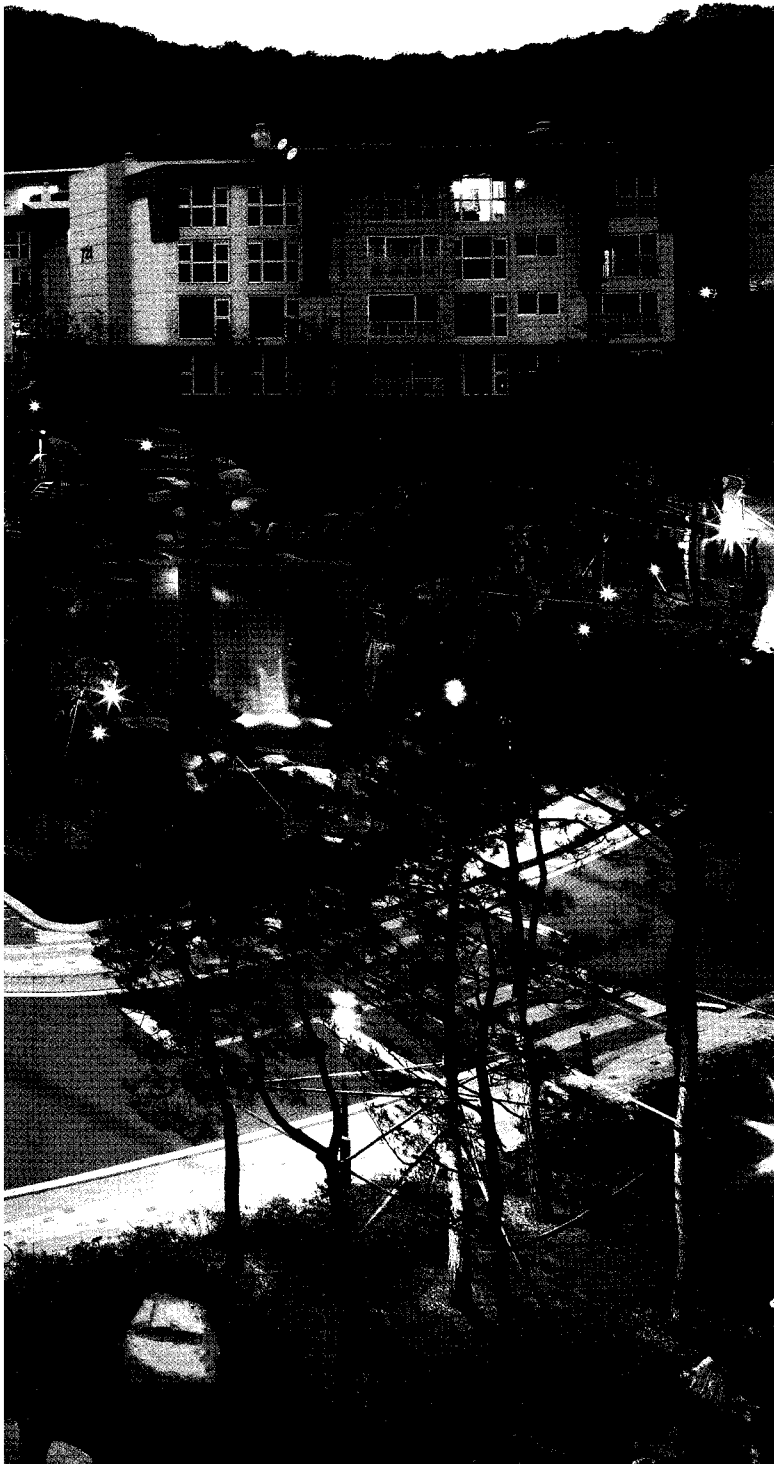
단지를 조성하는 건축개념은 자연과 인공물의 공생에 두었다. 따라서 경사지를 절토하여 넓은 평면을 만든 다음 건물을 앉히는 방식은 지양되었다. 대신 지형을 따라 접힘(folding) 또는 기대기(leaning) 같은 개념으로 주택을 경사지에 앉는 시도를 하였고, 숲과 녹지를 이른바 '까서' 그 밑어낸 자리만큼을 건축물로 건폐(coverage)하는 개념 대신 숲과 숲 사이에 주택을 짜 넣는 이른바 짜깁기(interweave)라는 개념으로 계획되었다.

또한, 물길과 계곡 등 원래의 자연이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 내었을 지형을 재해석하여 인공그리드를 가지지 않고 물길을 따라 그에 부합(coincidence)되도록 수체계의 가로를 조성했다. 그리고 차량의 진출입과 주차공간을 지하에 두어 지상을 보행공간화 함으로써 이러한 콘셉트를 극대화 할 수 있었다.

Symbiosis between the Community and th Privacy _ 공동체와 개인이 더불어 살

외형면에서 자연과 인공의 공생에 주력했던 단지 내부의 구성 개념은 공동체의식과 사생활의 공생에 두었다.

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의 고흥적 마을 개념과 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사생활의 유동적 주택개념을 액상적(liquid)으로 공생시킴으로써 이른바 광장→인들→주택거실의 맥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였고, 전통마을의 망상(mesh)구조와 사적생활의 나뭇가지형 위계구조를 반격자형(semi-lattice)으로 공생시킴으로써 마을길→골목길→대문앞이 혼합된 생활가로를 갖게 되었다. 공동체의 집중기능과 개인의 분산성향을 배합하여 이른바 마을-클러스터-단위주택이 포도송이처럼 엮이게 한 것이다. ■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87번지
(산운마을7단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택지개발지구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대지면적 59,882.90㎡

건축면적 15,078.53㎡

연면적 55,32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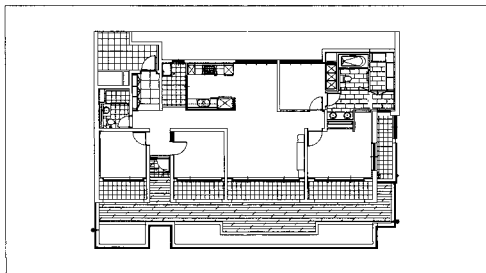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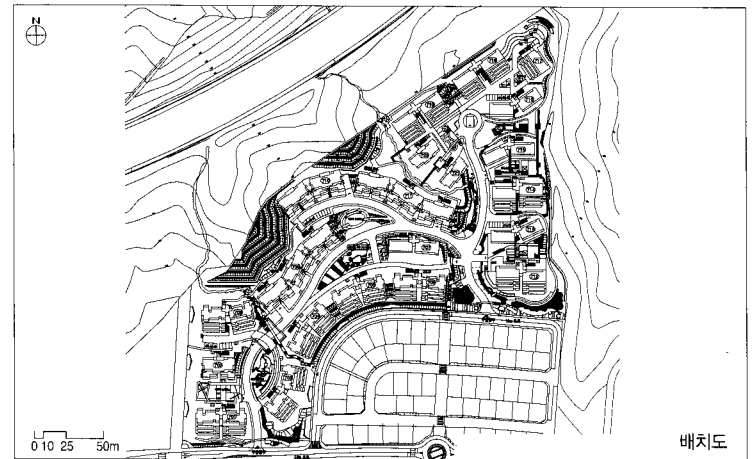
건폐율 25.18%

용적률 64.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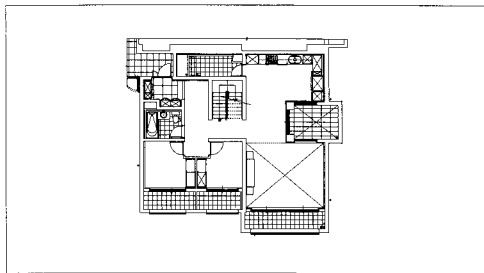
규모 공동주택 206세대 (지하 1층~지상 4층)

부대복리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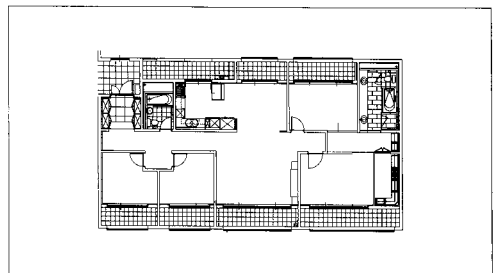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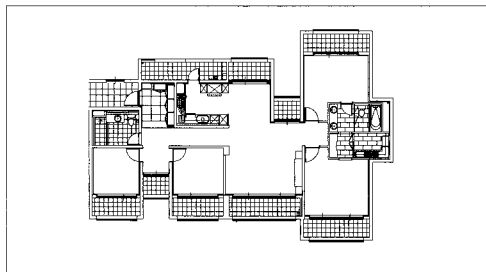
131㎡(Tr) 단위세대 평면도(기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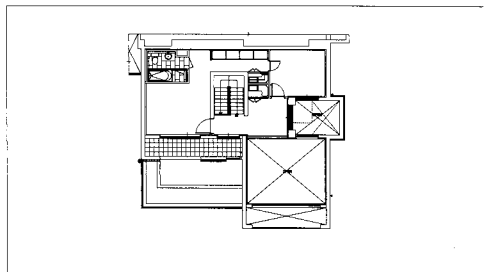
147㎡(Tr) 단위세대 평면도 - 하부층(기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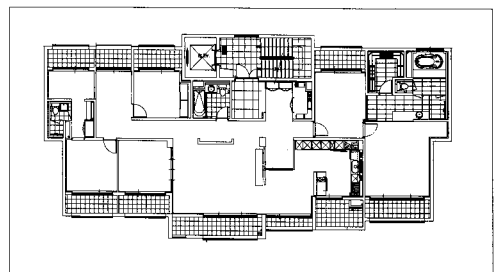
151㎡(A) 단위세대 평면도(기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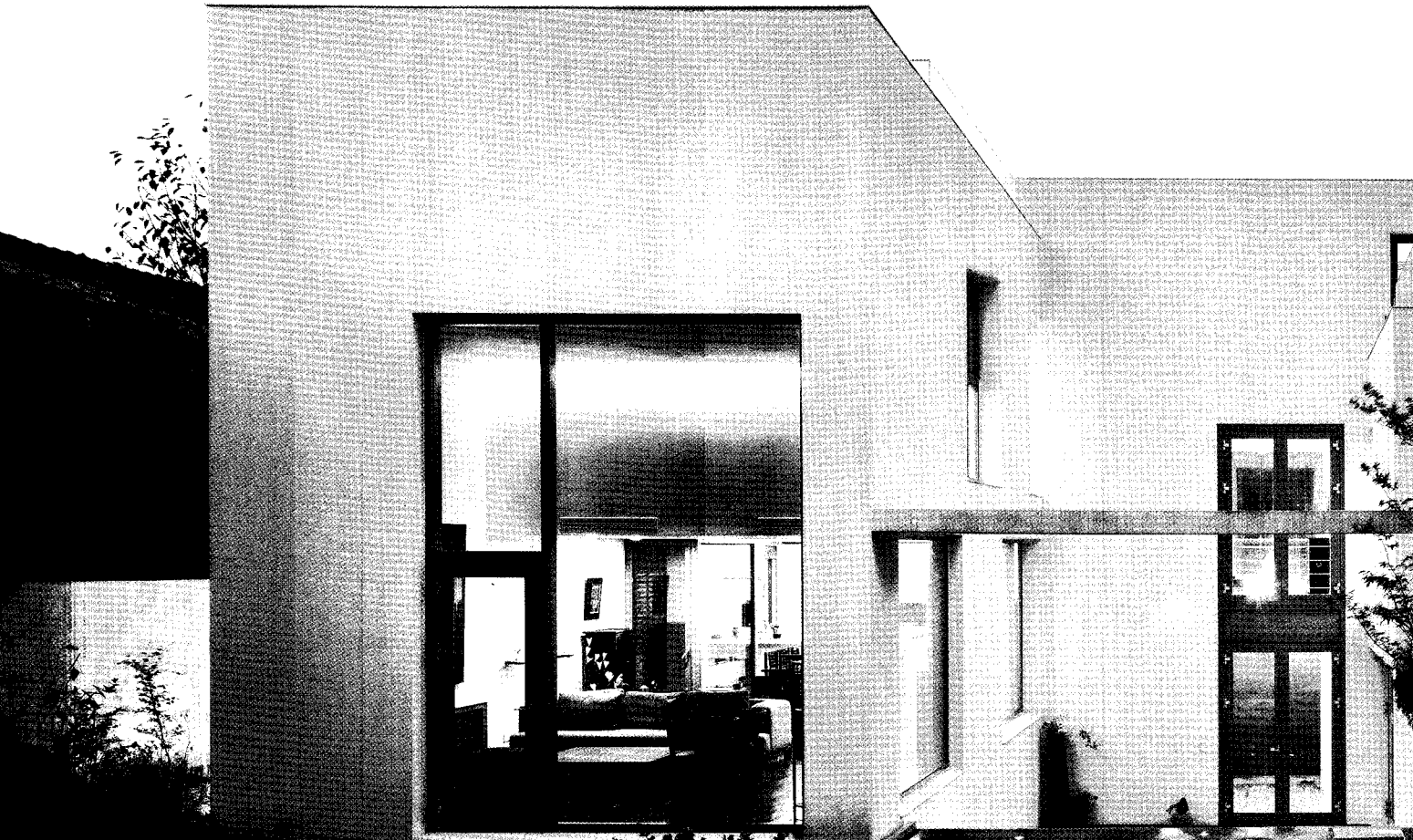
131㎡(A) 단위세대 평면도(기본형)



147㎡(Tr) 단위세대 평면도 - 상부층(기본형)



208㎡(A) 단위세대 평면도(기본형)



레티스 하우스 LATTICE HOUSE

- 설계자 : 인의식(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
- 시공자 : (주)제호 • 건축주 : 최두환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 준공건축물부문 | 일반주거부문 _ 대상

주택의 부지는 도심과 자연의 경계에 위치한다.

북측으로 빌딩의 실루엣과 남측으로 숲의 경관, 회색과 녹색, 긴장과 이완의 경계에 위치한 주택은 대립이 아닌 소통의 이야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주택은 주인의 문화와 감정을 담는 그릇이다.

주인이 소유하고 있던 가구들은 한국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절제되고 긴장된 비례미와 장인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가구이다.

이들 가구에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격자 모습이 디자인의 출발이었다.

평면은 5.1x5.1 모듈 집합체에서 중앙에 자연을 끼워넣고 다시 작은 모듈로 분해된 자연을

관입시켜 집안 구석구석에서 자연과 소통하도록 하였다.

이들 격자는 평면, 창호, 조경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되며 하나의 음악으로 연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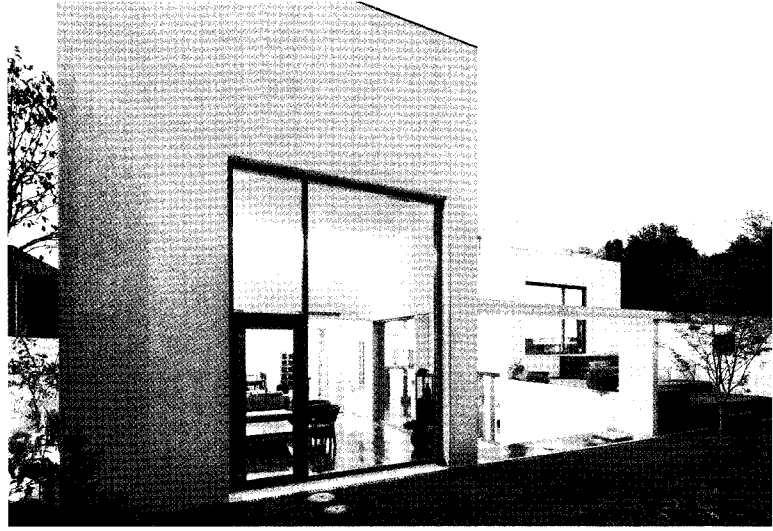
주택은 흐르는 자연을 머물게 하고 거주자와 오감으로 대화하게 하는 장치이다.

진입로 중정, 앞마당, 앞산으로 이어지는 자연은 건물을 관통한다.

중정의 폭포는 자연의 소리를 실내로 스며들게 하고 물에 반사된 햇빛과 폭포물결의 그림자가 건물 내부에 자연의 흔적을 남긴다.

주택내부에 관입되어 부유하는 중정들은 가까이에서 눈 오는 모습과 빗소리를 들려준다.

앞마당의 LATTICE 채소밭은 자연의 맛을 제공하고 사계절 다양한 모습으로 대지에 그림을 그린다. ■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지역지구 1층 전용주거지역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368㎡
 건축면적 156.82㎡

연면적 295.51㎡
 건폐율 42.61%
 용적률 71.88%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